

데스크 시락



**최재호**  
경제부장

지역민이 보는 JB금융의 광주은행 인수

보인다. JB금융은 광주은행을 인수함으로써 35조 원 규모의 호남 최대 금융그룹으로써 서남권 대표은행으로 도약할 수 있는 발판을 마련했다. 현재 지방은행 자산규모 2위인 대구의 DGB금융지주(37조 원)와 비슷한 수준이다. JB금융은 인수 뒤 투뱅크(Two-Bank) 체제를 천명하고 있다. 또 광주은행의 경우 JB금융지주와 중복 집포가 없어 고용 승계와 독립적 지배구조를 통해 조직 안정을 꾀할 수 있어 광주은행 인수에 따른 시너지 효과를 자신하고 있다.

지역경제 악영향 우려

김한 JB금융 회장이 “광주은행이 46년간 지역에서 사랑을 받아 온 은행으로서 지역의 자금 역외유출과 지역투자 감소라는 우려에 대해 알고 있다. 하지만 광주은행 증자에 지역민이 참여토록 배려하고, 광주은행 직원 고용을 100% 승계할 것이다”고 밝혔다. 일각에서 JB금융의 광주은행 인수에 대해 ‘최선은 아니지만 차선은 된다’는 분석이 나오는 데도 광주·전남 시도민은 해 로탈해 하고 있는가. 이는 지역민의 손으로 창립한 광주은행을 전북에 넘겨줬다는 자괴감과 함

께 규모가 작은 전북은행이 광주은행을 인수했다는 정서적인 박탈감이 저간에 깔려 있기 때문이다. 또한 지역경제에 미칠 악영향에도 우려가 적지 않다. 우선 JB금융이 투뱅크(Two-Bank) 체제를 약속했지만 이는 인수자 입장에서 피인수 은행의 합병에 대한 저항감을 의식한 제스처일 뿐이라는 지적이다. 현실적으로 합병 시너지를 누리기 위해서는 시스템 통합이 진행될 수밖에 없는 것이다. 둘째 JB금융이 광주은행과 지역민을 위한 배려를 천명하고 있지만 ‘팔은 안으로 굽는다’는 점에서 곧이 들을 사람은 많지 않다. 일방적이고 독선적으로 경영하면서 자금의 역외유출 등을 당연시한다면 지역경제의 선순환 구조가 가파르게 되고, 지역 지방대생들의 고용 창출 감소 등은 피할 수 없게 된다. 셋째 JB금융이 광주은행을 인수해 몸집을 더욱 불리게 했지만 리스크 요인은 더욱 커진 셈이다. 최근 금융당국이 금융지주사에 대한 리스크 관리 강화를 주문하고 있는 것도 부담스러운 부분이다. 이제 광주은행 인수는 현실이 됐다. 인수에 따른 갑론을박보다는 광주은행 리스크 관리와 지역경제가 감당해야 할 손실을 줄이는 데안 마련이 시급한 때다.

물론 광주은행 지역자본 인수의 불씨가 완전히 꺼진 것은 아니다. 7일 우리금융지주가 이사회를 열어 매각에 따른 세금 감면 혜택의 조세특례제한법이 국회에서 개정되지 않으면 경남은행과 광주은행 매각이 중단될 수 있도록 불법계회서를 변경했다.

조세특례법 개정 불씨 남아

이는 매각이 중단되지 않아도 적격 분할로 인정되지 않으면 경남·광주은행 분할을 백지화할 수 있다는 것이다. 두 지방은행을 분리할 때 우리금융에 부과되는 세금 6500여억 원을 감면토록 하는 조세특례법이 개정되지 않을 경우 매각이 무산될 수 있다는 의미다. 조세법 관련 사항을 확대 해석할 필요는 없지만 만약 매각이 불발되면 지역에서 전열을 재정비해 인수에 다시 도전해 볼 수 있다는 얘기도 있다. 지역민만의 기대일 수 있으나 만일을 위해 대비할 필요는 있다. 광주시와 전남도 등 각종 기관과 정치권, 광주상공회의소, 지역 기업들은 진행의 추이를 지켜보며 상황 변화에 대응할 수 있는 중지를 마련해야 한다. 만에 하나가 현실이 될 수 있기 때문이다. /lion@kwangju.co.kr

社說

역대 횡령 한국노총 광주본부 제정신인가

한국노총 광주지역본부 소속 임직원이 역대 보조금을 횡령해 무더기로 경찰에 입건됐다. 사법처리 당사자만 지역본부 전 의장 노모(53)를 비롯해 사무처장, 사무차장, 총무국장 등 주요 간부가 8명, 횡령에 가담한 광고회사·호텔·식당 등 거래업체 대표만도 무려 24명에 이른다고 한다. 광주지방경찰청에 따르면 노씨 등은 2008년 3월부터 지난해 6월까지 모두 121차례에 걸쳐 보조금 1억5500만 원을 횡령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은 노동절 행사와 관련한 기념 물품을 구입한 것처럼 꾸미는 등 전자제품 판매점, 뷔페, 백화점 등과 허위 거래 방식으로 돈을 횡령한 것으로 드러났다. 또한 리조트에서 세미나를 하면서 객실과 식사 인원을 부풀려 차액을 돌려받는 등 지출 부풀리기, 출근부 조작으로 보조금을 빼돌렸다. 노씨는 8개의 차명계좌와 횡령한 정도였다니 보조금을 제 호주머니의 돈처럼 여긴 셈이다. 횡령한 돈은

중소 사이버 무역사기 대응 매뉴얼 급하다

중소기업을 상대로 한 사이버 무역사기가 극성이라고 한다. 업체의 이매일을 해킹해 알아낸 해외 거래처 위장, 결제대금을 가로채는 수법으로 전남에서만 벌써 5억여 원 상당의 피해가 발생했다. 피해가 더 늘기 전에 예방대책을 서둘러야 한다는 지적이다. 경찰청에 따르면 지난해 기업체로부터 신고된 ‘이메일 해킹 무역사기’는 전 남 2건 등 총 47건으로 피해 규모만 41억 원에 달한다. 전남경찰이 조사 중인 영암지역 한 피해 업체는 52만 달러를 해외 ‘대포’ 계좌로 송금하는 피해를 입었다. 또 해외 은행계좌뿐 아니라 국내 은행계좌도 이용되면서 27만 달러 무역사기사건에 영암지역 외국인인 명의를 빌려둔 사실을 밝혀내기도 했다. 이번 무역사기의 특징은 이메일로 소통하는 국제 상거래이다 보니 피해업체가 정상적으로 대금을 송금한 것으로 착각하기 쉽다고 한다. 또한, 뉘엿게 거래업체가 대금지체를 독촉하는 과정에 서 사기 사실을 알게 되기 때문에 범인 검거도 쉽지 않다는 것이다. 더욱이 피해대금은 해외로 송금하는 경우, 지급정지는 물론 피해금 반환 청구도 어려운 실정이다. 한마디로 속수무책으로 당할 수밖에 없다. 문제는 날로 지능화되고, 고도화되는 사이버 사기에 대응하는 당국의 대처가 너무 느리다는 데 있다. 사실 이번 사이버 무역사기의 경우에도 전국적으로 상당수 중소기업이 피해를 입은 뒤 경찰청 등이 수사에 나섰다. 사이버 사기에 대한 즉각적인 대응을 할 수 있는 체계가 전혀 갖춰지지 않았다는 반증이다. 경찰은 무역협회, 한국인터넷진흥원, 은행연합회 등과 공조해 사이버 무역사기에 즉각적으로 대처 가능한 대응 매뉴얼을 마련하길 바란다. 그리고 지역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무역사기 예방 현 장교육도 실시해야 한다. 지금 이 시간에도 또 다른 무역사기가 행해지고 있지 않을지 모를 일이다.

은펜칼럼



**박행순**  
전남대 명예교수·(사)국제과학문화협회 이사

박테리아의 로봇 변신

김 이름이고 연구진은 ‘박테리아로봇(bacteribot)’이라고 줄여서 명명하였다. 그러나 거의 모든 기사와 방송들은 일반인들의 이해를 돕기 위해 ‘박테리아 로봇’이라고 부른다. 박로봇은 구형(球形)의 폴리스티렌 머리 구조와 이에 부착되어 몸체 역할을 하는 살모넬라 세균으로 이루어졌다. 실제로 머리는 하나지만 수족에 해당하는 편모를 가진 살모넬라라는 많은 수가 달라붙어서 문어발을 연상시킨다. 여기에 사용한 살모넬라(S. typhimurium)는 독성이 약화 내지 제거된 상태로써 유전자 조작을 거친 세균이다. 박로봇은 배터리를 동력으로 사용하여 작동하는 금속이나 플라스틱 구조물이 아니고 어엿한 생명체라는 점에서 다른 로봇들과 구별된다. 뿐만 아니라 여타 로봇들에 비해 상대적으로 무한히 작은 마이크로 크기로써 다른 로봇들의 활동영역이 모두 몸 밖인 것과 달리 박로봇은 체내에서 활동한다. 기존 환양치료는 암세포뿐만 아니라 정상 세포에게까지 광범위하게 작용하여 영향을 미치는데 반해 박로봇은 주 목표물이 암세포이다. 암세포들의 빠른 분화는 산소

와 영양분의 더 많은 공급을 필요로 하고 이를 위해 암세포에서는 혈관형성촉진인자를 만든다. 박테리아들은 암세포에서 분비하는 이런 물질들에 끌려서 암세포를 향해 이동한다. 박로봇이 암세포에 도달하면 폴리스티렌 머리 구조에 장착된 환양제가 작용할 수 있게 된다. 이는 직장암과 유방암 등 고형암의 치료과정에서 부작용을 최소화할 수 있는 아주 유용한 기술이다. 박로봇은 치료뿐만 아니라 초기 진단에도 유용하게 쓰일 것으로 기대된다. 박로봇 팀은 논문의 말미에서 자신들의 박테리아로봇 개념이 불치병들의 진단 및 치료를 위한 의료용 마이크로로봇의 개발에 지대한 영향을 끼칠 것이라는 것과 박테리아로봇을 이용한 약물 수송체 연구가 앞으로 더 진행되어야 함을 밝히고 있다. 우리는 자주 ‘세계 최초로 개발된...’이라는 보도를 접하면서 어떤 연구결과가 환자들의 치료를 위하여 곧 실용화될 것 같은 기대를 갖게 된다. 박로봇은 이제 막 세상에 태어나서 쥐를 동물모델로 사용하여 암 치료의 가능성을 보여주었다. 앞으로 임상실험을 거쳐서 박

로봇의 독특한 환양제 투여방식이 사람에게서 그 가치를 인정받고 암 환자들의 치료에 사용되기까지는 얼마나 많은 시간이 필요할지 아직 모른다. 박로봇은 의학과 공학의 공동 작품이다. 서로 다른 학문 분야가 참여하는 융합과학은 21세기의 대세이다. 미래학자 대니얼 핑크는 융합이 더하기 이상의 가치를 창조한다고 말했다. 박로봇이 크기는 무한히 작지만 그 위상은 광대하여 융합과학의 선두주자가 될 뿐만 아니라 사랑받는 마스코트가 되기를 바란다. 박로봇이 의료분야에서 실용화되기까지 연구진들이 지방대학이라는 제한된 여건 속에서 연구 인력과 연구비에 제한받지 않도록 충분한 지원이 뒷받침되어야 한다. 그리하여 박로봇이 지역대학의 위상을 높이고 국내외의 주목을 받게끔 하는 것이 진단 및 치료의 길을 열어주어 새로운 삶을 살도록 공헌할 날이 속히 오기를 바란다. 은펜칼럼은 오피니언 기고 최우수작 수상자의 모임인 ‘은펜클럽’ 회원들의 칼럼을 실는 코너입니다.

기고

역동적인 도시 광주를 디자인하자

북경·상해와 함께 중국의 3대 도시에 속한다. 총 면적은 1만6000km이며, 인구는 670만 명에 달한다. 광저우는 중국 남부 지역의 중요한 상업 도시로써 최근 빠른 속도로 발전하고 있다. 홍콩, 마카오와 바다를 사이에 두고 마주하며 중국 대륙과 이들 지역을 연결하는 교통의 요충지 역할을 하고 있다. 이에 하나의 도시인 광저우는 중국뿐만 아니라 전세계 다양한 인구가 유입되면서 역동적인 도시로 성장하고 있다. 최근 중국이 세계적인 경제 강국으로 급부상하면서 중산층이 두터워지고 의식주에 국한되었던 소비 경향이 여가와 관광 등 문화 지향적으로 바뀌면서 중국의 도시에 도 많은 변화가 발생하게 된 것이다. 중국 도시들의 이러한 변화는 자연적 인구 증가가 문화하고 있는 상황에서도 사회적 인구의 증가가 지역의 인구 구조 변화를 주도하고 있기 때문이다. 광주시가 역동적인 도시를 만들기 위해서는 우선 도시를 중심으로 급변하는 사회 성장기 속에 도시의 쇠퇴를 막고 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해 필요한 요건은 무엇인지 분석해야 한다. 따라서 광주시가 타 시·도보다 경쟁력을 강화하고 주도적인 위치를 확보하기 위해서

는 인구유입 및 인구증가 정책, 출산장려, 문화관광정책 등을 보다 구체적이고 정확한 진단과 분석이 선행되어야 한다. 이에 광주시가 역동적이고 생명감 넘치는 도시로 도약하기 위해 몇 가지 제안하고자 한다. 첫째, 광주가 인구유입을 위해 부족한 관광 인프라 기반시설을 확충해야 한다. 현재 진행중인 어등산 관광단지 조성, 광주·전남의 유일한 놀이시설인 우치공원 명품화 사업, 수목원 조성 사업 등이 차질없이 추진되어 도심 속 관광시설 확충으로 도심 생태계의 오아시스로 만들 필요가 있다. 둘째, 아시아문화중심도시 조성에 발맞춰 문화 허브 도시로써 중장기 추진 계획을 수립해야 한다. 광주만의 문화를 만들어 급증하는 관광 수요에 대응할 준비를 해야 한다. 또한, 글로벌 문화·예술계 인사들을 발굴하고 성장시킬 수 있는 교육 및 지원체계를 구축할 수 있는 기반 조성이 중요하다. 셋째, 저출산 고령화를 대비한 출산 장려 정책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 다양한 보육지원 정책, 가족 친화적인 사회분위기 조성이 선행되어야 한다. 또한, 일과 가정이 양립될 수 있도록 여성의 경제활동 참여율과 출산율을 동시에 높이기 위한 양성 평등적 사회를 만들어야 한다. 고령화에 대한 대책으로는

노인 인구의 경제 활동 참여율을 높여 생산적 고령화를 지향해야 한다. 고령자의 재취업 지원, 기업자의 고령자 고용 확대, 고령자에 적합한 직종 개발, 정년 연장 등 100세 시대에 걸 맞는 사회적 방도를 강구해야 한다. 넷째, 교통 및 접근성 확대 방안을 강구할 필요가 있다. 최근 한 설문조사에서 도시를 찾는 관광객이 가장 큰 불편을 느끼는 분야가 교통과 숙박, 그리고 안내 표지판이라는 조사결과가 나왔다. 특히 광주를 방문하는 개별 여행객이 증가하고 있는 사실에 주목해야 한다. 관광안내 표지판의 추가 설치와 주요 관광지에 홍보물 비치 등 중심 타일에 대한 공략에 나서야 한다. 다섯째, 전략적인 홍보와 도시마케팅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 세계 각국이 중국 아웃바운드 관광객 유치에 위해 치열한 경쟁을 벌이고 있는 상황에 경쟁과 변화가 극심한 중국 관광시장에 대한 장기적이고 체계적인 홍보 마케팅 마스터 플랜을 수립해야 한다. 21세기 도시는 하나의 작은 국가라고 할 수 있다. 시민이 생존하는 역동적인 도시 광주는 급변하는 사회 변화에 대처할 수 있는 유연성과 10년 후, 100년 뒤를 내다볼 수 있는 해안에서 비롯한 체계적인 계획에서 시작됨을 명심해야 한다.



**이은방**  
광주시의원

독자투고를 기다립니다. 주변의 작은 이야기들, 생활의 경험, 불편 사항 등을 보내주세요. 채택된 원고는 고료를 지급합니다. 원고를 보내실 때는 이름, 주소, 전화번호를 함께 적어 주십시오. 501-710 광주광역시 동구 금남로 238 광주일보 오피니언 담당자

전화 062-2200-684/팩스 062-222-4918/e메일 opinion@kwangju.co.kr

**無 等 鼓**

모든 분야에는 남달리 뛰어난 사람이 있게 마련이다. 제1차 세계대전에서 가장 뛰어난 격투왕으로 꼽혔던 독일 비행사 만프레트 폰 리히토펜도 그런 사람 중 한 명이다. 동체 전부를 붉게 칠한 삼엽기 ‘Fokker Dr.1’ 전투기를 타고 다녔기에 ‘붉은 남작(The Red Baron)’이라고도 불렀던 그는 비행기 조종술이 천재적이었다. 얼마나 명성이 높았는지, 누구든 공전에서 ‘붉은 남작’을 만난 연합군 비행사들은 죽음의 공포에 떨었다. 물론, 당시는 비행기 제작실력이 보잘 것 없었고 조종사들의 훈련도 형편 없던 때라 비행기 다섯대만 격추하면 격투왕이라는 명예를 얻을 수 있었다. 하지만, 리히토펜은 불과 15개월 사이에 최단, 최장 비행 시간 80대의 전투기를 격추시켰다. 75명에서 91명 사이의 연합군 조종사들이 그와 공중전을 벌이다 전사했으며, 그보다 훨씬 많은 수의 병사들이 리히토펜의 폭격으로 죽었다. 지금은 각종 영화와 책으로 제작되면서 유명세를 타고 있지만, 1차 대전 중 리히토펜이 몰고 다녔던 비행기는 오늘 날에 비하면 명함도 내밀지 못 할 정도로 초라했다. 동체 길이 5.77m, 날개 길이 7.19m의 프로펠러 추진 비행기인 ‘Fokker Dr.1’은 최고 속도가 시속 185km에 불과했다. 7.9mm기관총 2문으로 무장하고 있었지만 워낙 명중도가 떨어지는 바람에 기관총을 쏘아 적기를 떨어뜨리기 위해선 극히 가까운 거리에서 교전을 해야 했다. 또, 레이더나 레이다 정보장치가 없었던 것은 물론 아군기와의 교신을 위한 통신장비조차 변변치 않아 공중전은 전적으로 조종사의 시각과 판단, 조종술에 의존할 수밖에 없었다. 최근 우리 공군이 차기전투기(FX)로 미국 록히드마틴의 F35A전투기를 최종 낙점했다. 엄청난 가격에도 F35A가 선정된 가장 큰 이유는 바로 레이더에 잡히지 않도록 해주는 스텔스 기능을 보유하고 있기 때문이다. 조종술보다는 첨단 기술이 더 우대를 받는 현실이 반영된 셈이다. 사람이 실 자리가 갈수록 비좁아지는 것만 같아 씁쓸하다. /홍행기 사회1팀장 redplane@kwangju.co.kr

|                                                                                                                           |                                                                                                                           |                                                                                                                                                                                                         |                                                                                                                                                                        |
|---------------------------------------------------------------------------------------------------------------------------|---------------------------------------------------------------------------------------------------------------------------|---------------------------------------------------------------------------------------------------------------------------------------------------------------------------------------------------------|------------------------------------------------------------------------------------------------------------------------------------------------------------------------|
| <b>光 州 日 報</b>                                                                                                            |                                                                                                                           | The Kwangju Ilbo                                                                                                                                                                                        |                                                                                                                                                                        |
| 시장·발행·편집·인쇄인 <b>金汝松</b> 논설주간 <b>申滄樂</b> 편집국장 <b>奇賢鎭</b>                                                                   |                                                                                                                           |                                                                                                                                                                                                         |                                                                                                                                                                        |
| 1952년 4월 20일 創社 1980년 11월 29일 등록번호 광주기1(일간)                                                                               |                                                                                                                           | 광주광역시 동구 금남로 238 (우편번호 501-710)                                                                                                                                                                         |                                                                                                                                                                        |
| 대표전화 222-8111·2200-551(지사·지국(구독신청·매달안내)) 광고문의 062-227-9600                                                                |                                                                                                                           |                                                                                                                                                                                                         |                                                                                                                                                                        |
| 편집국내<br><대표 FAX 222-4918><br>편 집 부 2200-649<br>정 치 부 2200-612<br><대표 FAX 222-4918><br>사 회 부 2200-616<br><대표 FAX 222-4267> | 경 제 부 2200-663<br>문화 1부 2200-661<br>문화 2부 2200-651<br>여문예부 2200-621<br>체 육 부 2200-697<br>사 진 부 2200-693<br>조 사 부 2200-571 | 경영지원본부 2200-515<br><F A X 222-8005> <F A X 222-0195><br>광고마케팅국 227-9600 독자서비스국 2200-551<br><F A X 227-9500> <F A X 227-9500><br>디 지 인 실 2200-536 서울지사 02-773-9331<br>프로젝트팀 2200-555 <F A X 02-773-9335> | 문화 사업국 2200-541<br><F A X 222-8005> <F A X 222-0195><br>독자서비스국 2200-551<br><F A X 227-9500> <F A X 227-9500><br>서울지사 02-773-9331<br>프로젝트팀 2200-555 <F A X 02-773-9335> |
| ※구독료 월정 10,000원 1부 500원                                                                                                   |                                                                                                                           |                                                                                                                                                                                                         |                                                                                                                                                                        |
| 본지는 신문윤리 강령 및 그 실천요강을 준수합니다                                                                                               |                                                                                                                           |                                                                                                                                                                                                         |                                                                                                                                                                        |